

평범한 영웅

도서명 : 독립운동가, 난민이 되다

이태서

역사책이나 위인전에는 독립운동가가 많이 나온다. 안중근, 윤봉길, 유관순, 안창호.. 그분들이 나라를 위해 한 일은 정말 대단하다. 열악한 환경에서 강한 적과 싸우며 목숨까지 바쳤다. 만약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났다면 절대 못 했을 일이다.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친일파가 되진 않았겠지만, 독립운동가가 되지도 못했을 것 같다.

난 평범하다. 죽거나 다치는 게 무섭고, 대단한 능력도 없다. 학교에서도 튀지 않고 평범하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과 다르다. 그분들이 일제강점기가 아니라 다른 시대에 태어났다면, 이순신이나 강감찬 같은 장군이 되었을 거다. 강한 힘과 정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비록 좋은 환경에서 태어나서 높은 자리에 가진 못했지만, 결국 낮은 자리에 가서 훌륭한 독립운동가가 되셨다. 그런 점이 존경스럽다. 그분들은 나와 다른 특별한 영웅이다.

독립운동은 못 하지만, 독립운동의 정신은 본받고 싶다. 그래서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했다. 독립운동과 관련된 책이 참 많았다. 제목도 서로 경쟁하듯 멋지다. 그런데 책들 사이에서 특이한 제목의 책을 발견했다. <독립운동가, 난민이 되다>라는 책이었다. 난민은 힘없고 불쌍한 사람들이 아닌가? 책에서도 봤지만, 지금도 전쟁과 테러가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뉴스에서도 난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 우리나라에 찾아온 난민도 있다고 했다. 실제로 토론 시간에 난민을 주제로 이야기한 적도 있다. 그때 난 난민이 약자라고 느꼈다. 난민에 대해 토론할 때 우리 난민의 의견을 묻지 않는다. 받아줘야 할지 말아야 할지를 우리가 결정한다. 그들은 선택권 없이 결정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강하고 그들은 약해서 그렇다. 자기 나라를 떠나 피난 온 사람들에게겐 힘이 없다.

난민의 이미지는 평소 내가 생각하던 독립운동가와 어울리지 않았다. 독립운동가는 영웅이다. 난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착하고 강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이 책은 독립운동가들이 난민이었다고 말한다. 나라를 잃고 떠나서 난민이라고 한 걸까? 그래도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할 만큼 강한 사람들이다. 난민이라는 표현보다 작전상 후퇴가 더 어울릴 것만 같았다. 하지만 이 책은 난민이라는 제목을 썼다. 이유가 궁금해서 다른 책들보다 먼저 읽기로 했다.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조선에 살다 해외로 떠났다. 누군가는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떠났고, 다른 누군가는 힘을 길러 일본과 싸우려고 떠났다. 흥범도 장군처럼 추방된 사람도 있었다. 각자의 사정으로 나라를 떠나 새로운 환경에서 살게 되었다. 그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차별을 겪었다. 평범한 우리가 외국에서 겪는 차별과 다르지 않았다. 외국인들 눈엔 다 똑같은 이방인이었다.

차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없다. 누구나 차별당하기 싫어하고, 차별당하지 않으려고 노력한다. 하지만 난민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쫓아내지 않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한다. 난민에겐 돌아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만주로 갔던 백범 김구도 차별을 겪었다. 우리는 대단한 역사 속 위인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삶에서 그는 평범하고 약한 난민이었다. 어느 날 시장에서 조선인이 인삼을 팔고 있었다. 그곳 상인들이 그가 조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괴롭히기 시작했다. 아무 증거도 없이 가짜 인삼을 팔지 말라며 폭력까지 썼다. 도와줄 이웃이나 경찰

은 없었다. 그 모습을 본 김구는 말리고 싶었지만 말릴 힘이 없었다. 그래서 대신 맞아줬다. 그게 할 수 있는 일의 전부였다. 많은 독립운동가가 차별을 이겨내지 못했다. 그냥 참고 견뎠다. 소수자인 이방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처럼, 독립운동가들도 똑같이 살았다. 그게 난민의 삶이다.

역사는 독립운동가들을 영웅으로 기록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을 영웅으로 기억한다. 실제로 그분들이 한 일을 보면 영웅이 맞다. 어려운 환경에서 독립운동까지 해냈으니 정말 대단한 분들이다. 하지만 독립운동가들은 약하고 평범한 난민이기도 했다. 독립운동을 했다는 점에서 대단하지만, 다른 점에서는 보통 사람과 다르지 않았다. 어쩌면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우리와 똑같이 약하고, 우리와 똑같이 고통받고, 우리와 똑같이 차별당했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이었다.

이 책은 독립운동가들이 난민이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훌륭한데 가려져 알려지지 않은 독립운동가의 다른 모습, 우리 같이 평범한 사람과 같은 모습을 보여준다. 평범하지만 그분들은 영웅이다. 평범하기 때문에 영웅이다. 운 좋게 대단한 능력을 타고나서 활용한 게 아니라, 평범한 사람인데도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능력을 발휘했다.

특별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했을까? 나와 다르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목숨을 바치면서 나라를 위해 싸웠을까? 독립운동의 비밀은 능력이 아니라 사랑이다. 나라에 대한 사랑 때문에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다. 자신보다 나라를 더 사랑하니까, 자기 인생보다 나라의 독립을 먼저 생각했다. 자신이 죽는 것보다 나라가 망하는 게 더 두려웠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이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었다. 능력이 없고 환경도 좋지 않지만, 나라를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다.

이제 우리도 독립운동가가 될 수 있다. 능력은 없지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기 때문이다. 지금 대한민국은 '독립'이 필요한 환경도 아니다. 하지만 고통받는 사람이 많고, 여러 문제로 나라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야 한다. 법을 잘 지키고, 군대에도 가고, 열심히 공부해서 나라를 위해 일하고, 아이도 둘 이상 낳기. 대단한 능력이 필요한 일들은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면 할 수 있다. 그런 노력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독립운동이다. 평범한 사람들의 위대한 독립운동.